



# 한울림 교회

##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권혁용, 차유미

목사

김원재

## 주일예배

오전 9시 /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인도자
12월의기도	이 땅을 위한 기도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찬28)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어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말씀교독	사도행전 25:1-12
특별찬양	영화롭도다 사마임찬양대
말씀선포	“2년이 지난 후 그들은” 김원재
찬양과결단*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 301) 다같이
축도*	인도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2월의 공동기도는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에 함께 기도하며 주중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2년 예산안 결의와 직분자 피택을 위한 **정기공동의회**가 있습니다.
4. 2021년 12월 31일(금) 오후 11시 30분에 **새해첫예배**가 있습니다. **자녀축복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가정은 **기도카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차유미 전도사)
5. 2022년 1월 1일(토)은 새벽기도회가 없습니다.
6. 다음주일(1/2)은 신년주일입니다. 신년감사헌금의 50%는 선교와 이웃사랑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7.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증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정주애 전도사)
8. 남은 2022년 **달력을**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2022년 **큐티책 연간 정기구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년 : \$70 / 6개월 : \$35 (문의 - 박순정)
10.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 새벽기도회(오전 5:30)에 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2.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연말은 오히려 차분하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마음의 짐으로 쌓여 무겁게 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일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기쁘게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일년 예산을 결의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한 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성탄절예배, 오는 주 금요일에는 새해첫예배, 오늘은 정기공동의회가 있으니 연말은 연말인가 봅니다. 오늘 공동의회에서는 안수집사를 피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나와 친한 사람을 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후보자가 교회의 사역자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나와 친소관계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천위원회에서 이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분을 공천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에 상정될 2022년 예산안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가운데 편성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도 하고, 새예배당에 들어가서 운영과 관리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추가로 용자를 내어야 하는데 그 용자금도 얼마를 줘야 하는지 매월 금액이 얼마일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새예배당을 주심도 감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변수가 상존하더라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람이나, 결의하는 여러분들이나 모두 이런 마음으로 2022년 예산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흐트러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중심,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세모(歲暮)에 다시 우리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는 세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그 꿈을 다시 붙잡고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